

3 월 1 일(일)

오늘은 드디어 오래 동안 꿈을 꾸고 있던 한국 어학 유학을 하러 서울에 가는 날이다. 아내가 센다이 공항까지 차로 바래다주었다. 센다이 공항에서 우연히 水原 씨를 만났다. 水原 씨도 나와 같은 목적으로 서울에 간단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 水原 씨도 처음엔 ‘가나다 한국어학원’ 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연세대학교 어학당으로 바뀌졌단다.



비행기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나에게 말을 붙여 왔으니 이야기해 보니 이완영(李完永) 씨의 조카인 이건호(李建昊) 군이잖아. 이건호 군 또, 올해 1 월에 재일한국인기술자협회(在日韓国人技術者協會) 동북 홉카이드 지부의 신년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 모 씨를 만났다.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난 비행기였다.

비행기 안에서는 주로 水原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냈다. 김포공항에는 李完永 씨가 나를 마중하러 와 있었다. 공항 대합실에서 마침 일본과 한국의 축구 경기가 방송되어 있어서 그걸 좀 구경했다가 李完永 씨택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자 나현(娜賢)아와 나빈(娜嬪)아가 달려들고 나를 환영해 주었다. 저녁에는 李完永의 동향 친구라고 하는 모 출판사의 사장님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셋이서 막걸리를 6 병이나 마시고 말았다.



나현아와 나빈아

3 월 2 일 (월)

오늘은 이완영 씨에게 대단한 신세를 졌다. 우선 아침에 서울까지 차로 보내 주고 가나다학원까지도 같이 가고, 또한 하숙집에도 같이 가 주고, 서울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일을 도와 주고 게다가 점심도 한턱 내 주었다.



가나다학원 홍선경(洪善璟) 원장 선생님은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여러 가지 입학 절차를 하고 나서, 원장 선생님한테 홍 원장선생님 하숙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전화를 걸어 주었다.

그랬더니, 이윽고 어떤 아주머니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아주머니와 이완영 씨도 함께 하숙집에 가 봤다. 하숙집은 64 살이 된 그 아주머니가 혼자서 경영하는 집이고 주변에 술집 같은 가게가 많은 곳에 있다. 그 집에 하숙하기로

정하고 다시 가나다 학원에 가서 몇급 클래스에서 공부하면 좋은가를 알아보는



하숙집 입구



내 하숙집 방

간단한 시험을 봤다.  
결과는 5급 클래스로  
됐다. 시험이 끝난 뒤  
하숙집까지 혼자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하숙집 근처까지

오다가 길을 잃어서 아주 곤란하고 말았다. 그래서 편의점(7-11)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저씨에게 하숙집에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화를 받은  
하숙 아줌마가 편의점까지 마중하러 와 주어서 겨우 하숙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저녁 때 소개받은 하숙친구들은 일본 사람이 많았다.

### 3월 3일(화)

오전에 빨래를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



철도 박물관 관람권

서울역 옆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구경했는데 별로 큰 박물관이 아니어서 금방  
끝났다.

그런데 역 앞 광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양심수(良心囚) 전원 석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이란 집회를  
하고 있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란 단체가  
주최자라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



전원 석방하라는 모임인 것 같다. 그런 모습은 역시 한국이 아니면 볼수 없는 광경이라고 느꼈다.

다음에 남대문시장까지 걸어가서 모 식당에서 점심으로서 순두부찌개를 먹어 봤다. 그저 그런 맛이였다. 그리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 돌아가 책방에서 한국과 서울시의 지도를 사고, 편의점에서 가위를 사고, 오후 3 시쯤 하숙집에 들어왔다. 만보계를 보니 오늘은 8850 보 걸었다.

### 3 월 4 일(수)

오늘도 서울은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날이였다. 오전에 하숙집으로부터 가나다학원까지 걸어 봤더니 약 30 분 걸렸다. 그런데 하숙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름길을 가 보면 15~20 분이면 갈 수 있대.

신촌로타리 근처에 있는 ‘마트 신촌’ 이란 가게에 가서 전기 면도기를 충전하기 위한 연장코드나 건전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하숙집에서 좀 쉬었다가 연세대학교를 구경하러 나갔다. 연세대학교는 상당히 큰 대학교였다.

### 3 월 5 일(목)

오늘 학원에서 ‘간접 화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특별 수업을 받았다. 선생님은 洪玄鐘(홍현중) 씨란 안경을 쓴 멋진 여성 선생님이다. 2 시간 15 분 공부했는데 시간이 아주 짧게 느꼈다. 이 특별 수업의 수강료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역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점심은 하숙집 근처에 있는 모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냉면을 먹었다. 그 후 하숙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산책하러 밖에 나갔는데 오늘은 15600 보나 걸었다. (유감스럽지만 洪선생님의 사진은 없다!)

### 3 월 6 일(금)



후열 나, 미국인 부부(목사)

전열 東紀子씨, 장선생님, 陳思宇씨, 단 클래스의 학생

오늘부터 가나다학원의 정규 수업이 시작됐다. 내가 배우는 5 급클래스에는



가나다학원



학생들이 모두로 6 명이며 미국인 부부, 대만인(여성), 재일한국인(남자),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일본인 2 명이다. 선생님은 張연희 씨란 여자 선생님이다. 수업은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나흘, 오전 8 시 45 분부터 12 시 45 분까지 50 분씩 4 시간이다. 수업이 끝난 뒤 대만 여성 陳思宇 씨와 일본 여성 東紀子 씨 그리고 내 셋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학원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陳思宇 씨는 호주 유학중에 한국남자와 사귀었다가 결혼했다는 젊은 여자인데 내 조카딸인 ‘미도리’를 좀 닮았다. 東紀子 씨는 싹싹한 아줌마같은 여자인데 부산에서 일본어 교사를 했다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가나다학원에 입학했단다. 세 사람은 어쩐지 마음이 맞는 것 같았다. 점심 먹고 나서 셋이서 신촌까지 걸어가서 농협의 가게에서 좀 쇼핑을 하다 헤어졌다.

### 3 월 7 일(토)

아침에 이완영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 오기를 기다렸지만 잘 생각해 보니 그는 어제부터 일본에 출장중였다. 그래서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김포공항까지 다녀와 봤다. 그런데 오늘은 지하철에서 세 번이나 실수를 했다. 첫 번째는 충정로(忠正路)역에서 2호선으로부터 5호선으로 갈아탈 때 개찰구를 나서 버렸기 때문에 다시 표를 사야 되게 된 것, 두 번째는 서울역에서 호선을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에 들어가고 잘못된 호선의 전철을 타 버린 것, 세 번째는 전철 안에서 잠이 들어서 신촌역을 지나가 버린 것이다.

오늘은 김포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도중에 여이도에서 지하철을 내리고 서울역까지 24,600 보나 걸었다.



63 빌딩



넓은 도로



MBC 방송국

3 월 8 일 (일) 아침 8 시 반에 이완영씨에게서 10 시~10 시 반경에 친구들과 북한산(北漢山)에 놀러 갈 테니 얼른 오라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완영 씨댁에 목을 준비와 월요일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9 시에 하숙집을 나서서 921 번 좌석 버스를 타고 일산(一山) 으로 향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불임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조금 불안이 됐지만 10 시쯤에 무사히 이완영 씨댁에

도착했다.

이완영 씨 친구들은 모두 전에 만난 적이 있는 남자뿐이고 모두가 부산대학 출신이자 동갑이란다. 친구들 가족과 함께 자가용 세 대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다. 북한산은 해발은 별로 높은 산이 아니지만 굉장히 험한 산이다.



김우선, 정봉운, 이완영, 나, 성만중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나와 이완영 씨

북한산산기슭에서 야유회를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 식당에 들러 동동주를 마시면서 닭볶음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도시락을 먹는



부인들과 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鄭사장님 댁에 가서 다시 막걸리를 마시며 음식을 먹고 재미있게 지냈다. 거기서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국 사람들의 바이태리티에 감복하며 이완영 씨택에 11 시쯤 돌아가고 나와 나연아 나빈아 셋이서 목욕하고 12 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 3 월 9 일 (월)

아침 8 시 40 분에 이완영 씨가 운전하는 차에 鄭사장, 金선배, 어떤 여성 그리고 나, 5 명이 동승하고 서울에 갔다. 나를 가나다학원까지 바래다주었다. 학원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본 하숙 친구가 “ 그들은 한국 사람이니?” 라고 물었다. “ 그래요” 라고 하더니 “ 부럽네” 라고 했다. 나는 좀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오늘은 변비가 심해서 기분이 나쁘고 입맛이 떨어져서 점심밥을 굶어버렸다. 저녁에 水原 씨에게 전화하더니 내일 수업이 끝난 후에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 3 월 10 일 (화)

오늘 학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난 숙제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좀 당황했지만 휴게 시간에 서둘러 이력저력 숙제를 해서 제출했다.

수업이 끝난 뒤, 오후 1 시에 그레이스백화점 앞에서 水原 씨를 만나서 근처의 모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Main dish 는 뼈를 뺀 닭갈비라는 음식이었는데 식사비를 水原 씨가 한턱 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내 하숙집에 들어서 내 짐을 놓아두고 水原 씨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 버스를 타고 가 봤다. 水原 씨의 방에서 동동주를 마셔가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7 시쯤 그 호텔을 나서고 돌아가는 길은 지하철을 타고 하숙집에 돌아왔다.



### 3 월 11 일 (수)

오늘은 쉬는 날이다. 학원은 수업이 월, 화, 목, 금요일 4 일간이다.

잠을 폭 잤으니 심신이 편하다. 오전에 숙제를 하고 나서 오후에 ‘ 비원’ 이란 곳을 구경하러 가려고 했지만 비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 대신에 ‘그랜드 마트’ 에 가서 좀 쇼핑을 했다.

### 월 12 일 (목)



수업이 끝난 후, 점심을 학원 근처의 식당에서 東 씨와 같이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東 씨에게서 “이제부터 친구를 안내하고 비원에 갈 예정이니 같이 가 보지 않을까요?” 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고 일단 신촌까지 가서 가방을 하숙집에 놓아두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東 씨가 그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해 보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가게 됐단다. 그래서 비원에 가는 건 그만두고 東 씨가 한국의 전통식 찻집에 안내해 주었다. 전통차는 그런 취미가 없는 나에게는 그야말로 ‘돼지에 진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그런 맛이였다.

### 3 월 13 일(금)

陳思宇 씨

東 紀子 씨



수업이 끝난 후 東씨, 陳思宇 씨와 내 셋이서 지하철을 타고 3 호선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내려서 점심을 먹었다가 뉴코아 백화점 옆에 있는 김수클럽이란 쇼핑 센터에 가 봤다. 굉장히 큰 쇼핑 센터이고 없는 것이 없는 듯한 가게였다.

### 3 월 14 일(토)

오늘로 한국에 온 지 딱 2 주일 동안이 됐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춥고 흐림이라서 시내 구경을 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숙집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가 문방구점과 그랜드 마트에서 쇼핑한 일 이외는 하숙집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내 방의 옷장통?

### 3 월 15 일(일)

오늘은 이완영 씨네 집에 놀러 가는 날인 줄 알고 아침에 준비를 하고 9 시에 다짐하기 위해 전화해 보니 인천(仁川)에는 어제 다녀왔단다. 게다가 오늘은 오후에 센다이로부터 누님 부부가 오기 때문에 김포 공항까지 마중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놀러 가기를 그만두었다. 대신에 인사동과 창덕궁, 비원을 구경하기로 했다. 우선 인사동에 가 봤는데, 인사동길은 휴일에는 소위 보행자 천국이 되어 길 가운데에 여러가지 노점들이 많이 늘어 있고 재미있는 길이었다.

마침 서양사람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와서 버스를 내린 서양사람들이 우르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인사동길



인사동길에서



인사동으로부터 커다란 현대 빌딩 앞을 지나가고 창덕궁까지 걸어 왔다.  
창덕궁 구경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3 개국어로 안내원이 각각 정해진 시간에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다. 난 한국어 가이드를 따라 구경해 봤지만 30~40%정도밖에 못알아들었다. 구경하면서 옆 사람에게 말을 붙여 볼까 했지만 비원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 달라고 부탁한 단 한마디뿐이었다.



창덕궁 동화문(敦化門)



창덕궁 낙선재(樂善齋)



비원 연화지(蓮花池)

창덕궁 구경을 마치고 다시 인사동 방향으로 걸어갔다. 잠시 걸어다가 배가 고팠으므로 점심을 먹으려고 인사동 근처에서 문득 눈에 띈 청송식당이란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식당의 여주인이 일본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서 재미있었다. 주인에게서



명함을 받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식당을 나쳤다.

또 걸어서 동대문시장 방면으로 가 봤지만 비슷한 가게들이 많아서 어디가 동대문시장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갔다. 저녁 때가 되기 전에 하숙집에 들어오자 누워서 두 시간 정도 잠을 잤다. 오늘은 20,700 보 걸었다.



동대문



거리에서



옷감을 파는 가게

추가: 센다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와서 같은 하숙집에 묵고 있던 타카하시 씨가 나에게 한국 가이드북을 주고 오늘 귀국했다.

### 3월 16일 (월)



5급의 친구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왠지 평소보다 빠른 느낌이 들어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게다가 내 말하기도  
꽤 서투른 듯 싶었다. 아마도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닐까?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시간은 오후 1시쯤인가?

갑자기 뽁 뽁 뽁 사이렌이 울리고, 그

순간부터 달리고 있는 차나 걷고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움직임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약 15분 후에 그 상태는 해제됐지만 같이 있던  
東 씨의 말에 따르면 이건 ‘민방위(民防衛)’라는 행사란다. 한국이 지금도  
전쟁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한 일이었다.

### 3월 17일(화)

오늘 홍 원장선생님이 지난해 내가 송금했던 학비가 ‘원’으로 환산해서 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초과한 돈을 갚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8번밖에 수업을 받지 않는데 왠지 말하기와 듣기에 자신이 없게  
됐으니까 일반 회화의 개인적인 특별 수업을 받고 싶다고 원장선생님에게 상의해  
봤다. 그랬더니 원장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계획을 세울 테니 모레  
다시 의논하자고 말했다.

점심을 東 씨와 陳思宇 씨하고 먹었다가 걸어서 신촌에 가는 길에서 오랜만에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지만 큰일이 되지 않았다.

서울은행 신촌 지점에 들러 예금을 50 만원 찾았다. 그리고 나서 하숙집에 가방을 놓아두고 센다이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묵을 호텔을 예비조사하러 타카하시 씨가 가르쳐 준 호텔에 가 봤다. 그건 하숙집에서 걸어서 5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인데 그저 그런 호텔이었다. 예비조사를 끝마친 뒤 그레이스 백화점의 책방에서 한국어 사전과 가요곡 가사집을 샀다.

### 3 월 18 일(수) 쉬는 날

오늘은 하숙집 친구인 Robert 씨(미국사람)가 미국에 돌아가는 날이다. 그 사람은 주한 미국군대의 병사였지만 군대를 제대된 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라 한다. 그가 가기 전에 하숙집 아주머니와 마침 하숙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주머니는  
일부러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어서  
찍었다.



Robert 나 아주머니 Gui(이스라엘인)



岩館 씨

기념 사진을 찍은 후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다가 한 번 올라가 보고 싶었던 하숙집 근처의 언덕에 가 보니 그 꼭대기는 주위를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숙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레이스 백화점에 들러 좀 비싸지만 큰맘 먹고 셔츠를 샀다.

### 3 월 19 일 (목)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내가 서울에 온 지 비가 오는 날은 두 번째다. 학원의 수업이 끝난 뒤 洪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 수업에 대해 상의했다. 그 자리에서 지난해 12 월에 송금했던 학비를 청산해서 168,570 원이나 갚아 주었다.

점심을 하숙집의 근처의 모 식당에서 먹었는데 소주병의 마개를 따느라고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마개로 다쳐서 피가 많이 나왔다. 나오는 피가 좀처럼 멎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식당의 아줌마에게 반창고를 한 장 달라고 부탁하더니 조금 찌푸린 표정을 지으면서도 반창고를 꺼내서

나에게 주었다. 반창고 덕분에 흘러나오는 피가 겨우 멎고 마음이 놓여서 소주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3 월 20 일(금)

오늘 아침은 굉장히 춥고 하숙집 아줌마가 “아침에 처마에 고드름이 생겼어.” 라고 말했다. 아마 내가 서울에 온 지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싶다. 학원에서 개인적 수업의 수강료를 납부했다. 그 수속을 할 때 한국말을 잘 말하지 못해서 참으로 한심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느 때와 같이 셋이서 점심을 먹었다가 걸어서 신촌까지 가고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좀 쇼핑을 했다.

### 3 월 21 일(토)

오후에 버스를 타고 이완영 씨택에 가서 묵었다.

### 3 월 22 일(일)

아침 7 시에 일어나고 이완영 씨 친구들과 같이 다섯이서 비봉(560m)이란 산에 등산하러 갔다. 같이 간 사람들은 이완영 씨, 鄭사장, 金선배, 朴용진 씨, 李정호 씨들이다. 약 2 시간 정도 걸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가 같은 등산로를 내려갔다.

鄭사장 金선배 나 朴용진



李완영

李정호 씨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데 도중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해서 도중에 있는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다.

모두가 산기슭에 내리고 점심을 먹자고 차를 타고 어느 식당에 갔다. 그 식당은 옛날의 분위기가 감도는 초가집인데 두부 요리로 유명한 식당이란다. 식사하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역시 잘 말하지 못해서 또 한심하게 됐다. 영화 감독인 이정호 씨는 첫인상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보였지만 알고



보나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식당 밖에서 둘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李正浩 감독과 같이

점심을 끝나고 나서 일단 이완영 씨댁에 돌아가서 세 시간정도 쉬었다가 가볍게 저녁을 먹고 다시 외식하러 밖에 나갔다.

외식은 아구찜을 먹었는데 깨끗한 식당이었다. 그 식당을 나서고 다음엔 鄭사장댁에 가서 맥주를 마셨다.

정말 술에 센 분들만 있는구나.

### 3 월 23 일 (월)

이완영 씨가 출근하는 김에 차로 학원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부터 개인 수업이 시작됐다. 보통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었다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공부했다. 선생님은 처음에 간접화법을 가르쳐 준 洪형중 선생님이다. 안경을 쓴 이지적인 멋진 여성이다. (아깝게도 사진이 없다.)

### 3 월 24 일(화)

오늘 하숙집에 젊은 일본 여성이 두 사람 새로 들어왔다. 저녁에 하숙집 아줌마가 없는 사이에 전화가 걸려 왔는데, 내가 받아 보니 일본에서부터 유학하러 온 사람인데 하숙집이 어디냐는 전화였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니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니 내가 마중하러 가겠다고 응답했다. 그 때 마침 아줌마가 돌아왔으니까 둘이서 그녀들을 마중하러 나갔다. 둘 다 연세대학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여자대학생이란다. 한 사람은 小林エリナ, 또 한 사람은 ナオミ라고 한다.



エリナ&ナオミ

### 3 월 25 일(수)

### 3 월 26 일(목)

### 3 월 27 일(금)

서울 은행 신촌 지점에서 예금을 400,000 원 찾고 4 월분 하숙비를 450,000 원 하숙집 아줌마에게 냈다.

### 3 월 28 일(토)

오전중은 공부를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화여자대학까지 걸어서 견학하러

가 봤다.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을 붙이지 못했다.

이완영 씨에게 이번 주말은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화했다.

### 3 월 29 일(일)

오늘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다. 2 호선 잠실역에서 내리고 올림픽공원까지 걸어서 가 봤다.

공원의 여기저기에 세계 각국의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놀고 있었다. 또 공원 여기저기서 결혼식의 옷차림을 입은 남녀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광경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마 내가 본 커플만이라도 15 쌍쯤 있었다. 카메라맨과 조수가 신혼부부에게 여러가지 포즈를 시키는 모양이 아주 재미있었다. 공원의 잔디밭에 나 있는 산나물을 여럿이 아줌마가 따고 있었다. 아마 쭈어나 냉이일 것이다. 여기저기 서 있는 조각상을 구경해 가면서 공원을 한 바퀴 빙 돌고 싸이클 경기장, 펜싱 경기장, 수영 경기장 등의 외관만 구경했다. 공원내의 나무 그늘에서 가족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술 마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일본에 비해 그 점은 감복했다.

올림픽 공원을 나가서 지하철 성내(城內)역 앞에 있는 모 식당에 들어가서 생맥주와 번디기란 음식을 시켜서 먹어 봤다. 번디기는 처음 먹어 본 음식인데 벌레같은 것을 파와 같이 기름으로 볶은 것이고 길보기로는 좀 무섭지만 먹어 보면 제법 맛있더라. 이따가 그 벌레같은 것이 누에인 것을 알았다.

점심을 끝내고 나서 남대문시장에 가서 T셔츠와 바지를 샀다.

오늘은 14,529 보 걸었다.

### 3 월 30 일(월)

내일로 학원의 3 월 수업이 끝난다. 그래서 교실에서 장(張) 선생님과 동급생들과 같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미국사람인 목사 부부는 이달로 공부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간단다.



## 장 선생님과 기념 촬영

그 후 학원 근처의 식당에서 미국사람 3명, 재일한국사람 2명, 대만사람 1명, 일본사람 2명, 모두가 여덟 명이서 사이 좋게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이완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내 아내에게서 집으로 전화해 달라는 전화가 왔단다.

즉시 집에 전화해 보니 新潟현에 사는 매형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단다.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다 맡겼다.

## 4월 31일(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수업의 날이라서 시험이 있었다.

## 4월 1일(수)

오늘부터 4월이다. 서울에 와서 비가 오는 날은 세 번째이다. 점심을 하숙집 근처의 식당에서 먹은 일 이외는 밖에 나서지 않고 방 안에서 공부만 했다.

## 4월 2일(목)

오늘부터 선생님이 김미현(金美賢) 씨로 바뀌었다. 안경을 쓴 몸집이 큰 여성이고 3월에는 옆 교실에서 4급을 가르친 선생님인 것 같다. 학생은 손순자(孫純子) 씨가 일본에 귀국하고 새로 宗像由紀 씨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3월까지 6급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 오오사카 외국어대학의 학생이고 한국말을 아주 잘 하는 여자 학생이다. 6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혼자뿐이 되었기 때문에 5급 교실에 옮았단다.



점심을 여느 때의 멤버와 宗像 씨와 넷이서 먹었다.

宗像씨와 김미현 선생님

## 4월 3일(금)

오늘은 宗像 씨와 단둘이서 점심을 중국 식당에서 먹었다. 왜냐하면 東 씨와 陳思宇 씨가 할 일이 있어서 한 시간 일찍 먼저 돌아갔기 때문이다.

## 4월 4일(토)

아침에 일어나자 장인택에 전화를 했다. 아내는 이미 센다이에 되돌아갔단다. 장인님 장모님과 좀 이야기했다가 일단 끊고 다음엔 센다이에 전화해 봤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어젯밤에 센다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지붕으로부터 미끄러져



떨어진 눈이 선릉의 창문 문지방까지 쌓였대.

그런데 우창수 씨에게서 우리 집에 전화가 와서 내 서울의 하숙집의 전화번호를 물었대. 그리고 오늘 그가 서울에 간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창수 씨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완영 씨택에 놀러 가는 일도 그만두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전화는 걸려 오지 않았다.

나오미 씨에게서 빌린 한국어 교재의 도움이 되는 부분을 베꼈다.

#### 4 월 5 일(일)



덕수궁 관람권

오늘도 우창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두세날 전에 전화해 두었으면 좋았을 걸.

한국의 전통 예술을 보고 싶어서 정동(貞洞)극장이란 극장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하숙집을 나갔다.

먼저 덕수궁에 가서 구경했다가 덕수궁 뒷쪽에 있는 정동극장에 가 봤다.



덕수궁(德守宮)



신혼 부부의 기념사진 촬영

공연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7시 반부터 열리고 입장권이 일반석이 20,000 원인 것을 알았다.

사전 조사를 끝난 뒤 맨처음에 서울에 여행을 왔을 때 묵은 서울프라자호텔의 뒷쪽에 있는 식당가를 그리워하며 거기서 점심을 먹었다.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岩館 씨에게 다음주 화요일에 전통예술을 구경하고 그후 한잔하자고 권유하더니 쾌히 찬성했다.

#### 4 월 6 일(월)

오늘 아침에 하숙집에 살게 되어서 岩館 씨와 학원에 처음으로 같이 갔다.

점심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1급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두 사람 같이 가서 여섯이서 먹었는데 1급의 학생들이 꽤 시끄러웠다.

오늘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생각보다 잘 해주었다. 저녁에 기다리고 있던 우창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는데 4 일에는 서울에 오기는 왔지만 바로 부산에 갔대. 내일 밤에는 서울에 갈 테니 모레 만나자고 했다.

#### 4 월 7 일(화)



저녁에 岩館 씨와 같이 정동극장에 한국의 전통예술을 구경하고자 다녀왔다.

그저그런 내용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 극장 앞 마당에서 출연자들과 관객들이 같이 춤을 추는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극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숙집 근처의 실내식 포장마차에 들러 좀 소주를 마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동극장 입장권

#### 4 월 8 일 (수)

오후 4 시에 세종회관에서 우창수 씨를 만날 약속이 있어서 가 봤는데, 약속한 커피숍에 가서 그의 모습을 찾았지만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좀 비싼 커피를 시켜서 그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 한참 기다리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다른 커피숍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세종회관을 한 바퀴 빙 돌아다녀 봤지만 커피숍은 그 커피숍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다시 그 커피숍에 들어가 보니 좀 보이기 어려운 한쪽 구석에 그가 있잖아. 그는 어떤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고 말을 붙였더니 그 두 사람을 소개해주었다. 한 사람은 세종대학 학장인 임 선생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 회사의 모 사장이란다. 우창수 씨는 임 학장이 말하는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녹음했다. 5 시 반쯤 녹음이 끝나고 임 학장은 그냥 헤어지고 우창수 씨와 모 사장 그리고 내 셋이서 택시를 타고 대학로의 문예극장에

우창수                  최병규                  나                  갔다.

거기서 우창수 씨의 친구들과 만나 모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친구들은 모두가 연극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배우들였다. 다들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인가 싶었다. 10 시쯤 식사를 끝내고 여러분과 헤어지고 신촌에 돌아갔다. 하숙집에 들어가 이완영 씨댁에 전화해 봤더니 부인이 전화를 받고 "4 월 11 일 이 내 친정 어머니의 생신이라서 가족들이 모두가 친정에 갈 테니 같이 가 보실래요?" 라고 했다. 물론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4 월 9 일 (목)

오늘 하숙집에 돌아오니 하숙집의 아주머니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판 하숙집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홍보하는 사진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아주머니와 함께 그 하숙집에 갔다. 그 하숙집은 우리 하숙집에서 걸어서 5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아주머니의 큰아들이 관리하고 있단다.

실은 난 그 아들을 가끔 보고 있다. 자주 술에 취하고 아주머니를 찾아와서는 말싸움을 하는 안색이 나쁘고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지. 아무튼 아주머니의 지시에 따라 그 집의 여기저기를 촬영했다.

그런데 날씨가 날이 갈수록 따뜻해져서 입을 만한 옷이 점점 없어졌다.

#### 4 월 10 일 (금)

오늘은 東紀子 씨와 陳思宇 씨 그리고 나 세 사람이 3 급 클래스의 新田 씨에게서 권유를 받아 서교(西橋)호텔까지 걸어서 가고 호텔 뒷쪽에 있는 모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 식당은 우리들이 항상 점심을 먹는 코끼리식당과는 수준이 달라 조금 고급식당이다. 표표(飄飄)한 모습의 新田 씨는 奈良市에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사장의 자리를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사모님과 둘이서 유유히 지내고 있단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 나와 동갑인 63 세였다. 식사비는 新田 씨가 전부 한턱 내 주었다. 식사를 끝난 후에 근처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新田 씨와 바둑을 두 판 두었지만 내가 완패하고 말았다. (新田 씨 사진은 4 월 24 일에 있다.)

그런데 내일에 이완영 씨 부인 손말숙 씨의 친정에 갈 예정은 다른 일이 생겨서 그만두었다.

#### 4 월 11 일 (토)

낮에 陳思宇 씨가 가르쳐 준 아쿠리스 백화점이란 곳에 가서 여러가지 쇼핑을 했다. 오늘 저녁에 우창수 씨와 처음에는 종로에서 만날 예정였지만 우창수



씨에게서 그의 친척들과 같이 식사하자는 전화가 와서 예정이 달라졌다.

지하철을 타고 약 1 시간 정도 걸려 개농(開籠)역에서 내리고 개찰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창수 씨를 만나 그의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갔다. 친척들은 우창수 씨의 여동생과 그 부군, 따님과 아드님이 한 명씩이었다. 부군은 이름이 임동수(林東秀)라고 하고 서울대학 출신의 수재이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식당에서



임동수(林東秀)씨 우창수 씨

식사한 후에 임동수 씨댁까지 가서 또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결국은 그 집에 묵고 말았다.

#### 4 월 12 일 (일)

아침 6 시에 일어나고 오늘 센다이에 돌아가는 우창수 씨와 함께 김포 공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우창수 씨를 배웅한 뒤 한참 공항 대합실에서 쉬었다가 도로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 돌아왔다. 하숙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3 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나섰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근처의 대중목욕탕에 가 봤다. 일본의 대중목욕탕과 다른 것은 사우나와 이발소가 딸리고 있는 점이다. 또 좀 놀란 일은 사람들이 일본사람처럼 국소를 손수건으로 감추지 않고 당당히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발소에서는 그야말로 알몸뚱이로 이발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다.

#### 4 월 13 일 (월)

오늘 점심을 학원 근처의 식당에서 新田 씨와 둘이서 먹었다. 그 후 개인수업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홍선생님에게 5 월은 한 달 동안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싶으니까 3 급 클래스에서 공부할까 하는데 어떻냐고 상담해 보니, 선생님이 3 급의 교과서는 거의 이미 공부한 문형이고 예문도 너무 쉬운 글이니까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로서 3 급 교과서를 보여 주었는데 분명히 쉬운

내용이라서 그건 그만두기로 했다.

#### 4 월 14 일 (화)

오후의 개인 수업이 끝난 뒤 공책을 깜박해서 교실의 책상 아래에 두고 돌아오고 말았다. 내일이 학원이 쉬는 날이라서 공책을 찾으러 갔다왔다.

그런데 서둘러 다녀와야 되니까 지하철로 갔는데 처음에 할인권으로 개찰구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웬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개찰구에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잘 됐다. 하지만 전철을 내리고 개찰구를 나가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나가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살며시 개찰구를 벗어났는데 정말 이상하다.

저녁에 식사를 한 후, 하숙집의 친구들 네 명과 같이 근처의 노래방에 놀러 가 봤다. 거기서 일본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가게였는데 난 일본 노래와 한국노래를 한 곡씩 불러 봤지만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심한 음치인 걸 느꼈지. 그래도 즐겁게 지냈다가 노래방을 나가서 여자들과 헤어지고 岩館 씨와 둘이서 술집에 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오미 에리나 宮下군 岩館씨



#### 4 월 15 일 (수)

오늘은 서울역에서 경인선(京仁線)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가 봤다. 가는 전철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아저씨와 내릴 때까지 서투른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저씨가 내 나이를 듣고 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나하고 동갑이네. 젊어 보이군.” 난 좀 좋은 기분이 되어 동인천(東仁川)역에서 내렸다. 마침 점심 때가 되어서 역 앞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 그 음식이 뭇인지 잊어버렸지만 무척 맛있고 값도 싼 것이었다.

식사를 끝나고 걸어서 자유공원까지 올라갔다. 좀 때가 늦은 감이 들었지만 아직 벚꽃이 피어 있어 아름다운 공원이다. 공원내 이곳저곳에서 노인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거나, 장기를 두고 있는 자리를 둘러싸고 와글와글 떠들어 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매가더 장군의 동상도 봤다.

돌아가는 길은 공원에 올라온 길과 반대편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경인선 종착역까지 갔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꽤 피곤했다.

저녁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高平 씨들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나를 찾아서 서울에 놀러 올 예정이래. 그래서 즉시 高平 씨에게 확인하는 전화를 해 보니 그렇단다.

#### 4월 16일 (목)

오늘 개인수업에서 발음 연습을 했는데 역시 [ㄴ]과 [ㅇ], [우]와[으]의 구별이 어렵고 된소리(경음)와 거센 소리(격음)의 구별도 여전히 어려웠다.

#### 4월 17일 (금)

오늘의 점심은 新田 씨의 제안으로 이전에 간 적이 있는 좀 고급인 식당에 가서 먹기로 됐다. 新田 씨, 東紀子 씨, 宗像由紀 씨, 그리고 나 넷이서 가서 불고기를 먹었다.

저녁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드님이 관리하고 있는 딴 하숙집에 우리 하숙생들을 데려가고 여느 때와 좀 달라진 음식을 먹었다.

#### 4월 18일 (토)

오전에 하숙집 아주머니에게서 아드님이 관리하는 하숙집에 있는 전압변환기가 이상한 것 같으니 좀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아주머니와 같이 그 집에 가 봤다. 그 변환기는 전류를 흘리지 않아도 변압기가 진동하며 발열하므로 변압기 자체가 고장 나고 있는가 싶다. 그래서 전기점에 수리를 부탁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오후에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왔을 때 안내할까 하는 인사동 근처의 조계사를 사전조사를 하고자 가 봤다. 조계사를 구경한 후 高橋 씨가 알려 준 종로서적에 가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사람을 위한 교과서를 구입했다.

신촌까지 돌아오고 그레이스백화점에서 속옷과 T셔츠를 샀더니 가진 돈이 거의 떨어지고 말았다.

저녁에 이완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에 일본에서 온 거래처 손님과 같이 놀러 갈 테니 내일 10시쯤까지 일산(一山)까지 오라는 말이었다.

#### 4월 19일 (일)

좀 오랜만에 606번 버스를 타고 일산의 이완영 씨택에 갔다. 완영 씨의 가족들과 친구 두 가족들과 일본에서 왔다는 伊藤 씨란 손님과



여럿이서 한탄강(漢灘江)의 강가에 가서 불고기 파티를 했다.

친구중에 정(鄭) 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과 좀 이야기해 봤는데 내 발음이 이상하다고 고쳐 주었다. 무슨 발음인가 하면 그 아들의 성씨가 [전]이 아니라 [정]이라고 해. 여전히 난 [ㄴ]과 [ㅇ]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건 그렇다치고 아무튼 불고기를 먹고 소주를 마시고 재미있게 지냈다.

#### 4 월 20 일 (월)

#### 4 월 21 일 (화)

오늘 학원에서 5 월 한 달만 공부를 하기를 위한 수속을 했다.

#### 4 월 22 일 (수)

오전 11 시에 밖으로 나가고 종로서적까지 가서 '일본어 학습 교과서'란 책을 샀는데 그건 먼저 사려고 생각하고 있던 책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청 근처까지 걸어 가면서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할까 이곳저곳 알아봤다. 쇼핑은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게 좋을 듯 싶고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은 저녁의 산책 코스로 하면 좋을 듯 싶다. 남대문 시장에서 T셔츠를 충동구매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롯데 호텔 근처를 걸어다니고 있더니 어느 낯선 사나이가 말을 붙여 왔다.

“야, 사장님 , 오래간만이예요. 저는 사장님을 어딘가에서 만난 적 있거든요. 그 동안 별로 없으세요?”

“?” 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다. 흥, 이게 소문에 들은 유객꾼이구나라고 느꼈다. 하지만 잠시 잡담해 보니 좀 재미 있었다. 물론 권유는 거절했다.

#### 4 월 23 일 (목)

오늘로 개인수업이 끝났다. 한숨을 돌리는 동시에 일말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야말로 ‘시원섭섭하다’ 라는 말이지. 그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신 홍현종(洪玄鐘)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숙집에 돌아와서 오늘 녹음한 테이프를 들어 보니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다. 아이구 마지막 수업의 녹음을 놓쳤다니.

#### 4 월 24 일 (금)

오늘의 점심을 新田 씨가 안내해 주고 홍익대(弘益大) 입구 근처에 있는 모

식당에서 먹었다. 그 식당 주인이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처의 바둑 기원에서 新田 씨와 만나서 아는 사이가 됐단다. 그런데 그 식당을 내가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맥주가 한 병에 3,000 원이란 점이지. 좀 믿지 못하는 싼 값이다. 그것도 큰 것인데.



저녁에 하숙집에서 식사를 한 후 岩館 씨와 같이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시다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新田 씨와 함께 (그

식당에서 4/28 촬영)

하숙집에 되돌아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제와 같이 통화중에 불통이 됐다.

#### 4 월 25 일 (토)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간 겸 그랜드마트에서 좀 성대한 쇼핑을 했다.

高平 씨에게서 다음달 친구들이 대거해서 서울에 놀러 갈 때 中嶋 씨와 山田 씨도 같이 가겠다는 전화가 왔다.

#### 4 월 26 일 (일)



전쟁기념관



입장권

어쩐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내달 서울에 놀러 올 친구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전쟁기념관과 이태원을 사전조사를 하러 가 봤다. 지하철 4 호선 삼각지(三角地)역에서 내리고 먼저 전쟁기념관에 가 봤다. 거기에는 옥외에 전투폭격기나 전차(戰車), 모형 잠수함 등 각가지 병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입장권을 구입하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해 봤지만 재미있기는 하지만 기념관 안에 있는 전시물을 다 자세히 구경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듯 싶어서 도중부터 대충 구경했다.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으로부터 이태원까지 걸어서 갔는데 거기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뿐이고 별로 재미있는 거리가 아니다. 이태원에서

지하철 약수(藥水)역까지 또 걸어갔다.

#### 4 월 27 일 (월)

오늘은 東紀子 씨가 심한 두통이 난다고 해서 수업을 쉬어서 집에 돌아갔다. 오늘 모처럼에 김미현 선생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東 씨가 없어서 어쩐지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陳思宇 씨는 오늘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같이 쇼핑을 하는 일도 오늘로 끝날 거다. 참으로 마음씨가 예쁜 여자였다.



#### 4 월 28 일 (화)

오늘에 학기말 시험을 봤다. 쓰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말하기와 듣기 문제는 좀 어려웠다.

그런데 東 씨는 두통이 더 심해져서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갔단다. 큰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新田 씨도 宗像 씨도 4 월로 공부를 그만두고 귀국한단다. 셋이서 마지막 점심을 먹었다. 그 후 新田 씨와 바둑을 두 판 두었으나 내가 또 다시 연패했다.

그런데 말이지, 5 월부터 6 급에서 공부하는 것을 신청했지만 6 급에서 공부할 학생이 나 혼자밖에 없대. 그래서 한 랭크 수준을 낮추어서 4 급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4 급 교과서를 보니 4 급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에게 꽤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4 월 29 일 (수)

오늘에 서울에 놀러 올 친구들을 강화도에 안내할까 생각해서 하숙집 근처의 버스터미널로부터 출발하는 강화도 행 버스를 타고 사전조사를 하러 다녀왔다. 강화도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고 주변을 돌아다녀 봤으나 주변에는 이렇다 할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단지 토산품 판매점이 하나만 좀 볼 만한 곳이었다.

그나저나 다른 곳은 친구들이 왔을 때 함께 구경하고자 생각하고 도로 버스를 타고 신촌에 돌아왔다.

南陽市の 小關 씨에게서 한국어로 쓴 긴 편지를 받았다. 오늘은 어젯밤에 오늘 오전 2 시까지 잠이 들지 않아서 수면부족으로 너무 졸렸다.



#### 4 월 30 일 (목)

아시이나 항공회사 본사에 가서 귀국할 비행기의 예약을 했는데 접수직원이 말하는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좀 기뻐다.

종로서적에 가서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처음에 구입하려고 생각한 책을 샀다. 또 吉田富雄 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있던 ‘검도 세계’란 잡지도 거기서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탑골 공원에서 이종열(李鐘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주부터 수요일이라면 내가 일본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쪽 사정은 어떠냐고 물어보니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하겠다는 대답이었다.

#### 5 월 1 일 (금)



독일사람 박용 씨



(재일한국인만 없음) 권성생님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의 4 급 클래스 공부가 시작됐다. 클래스의 학생들은 나를 포함해서 일본사람 네 명, 독일사람 한 명, 재일한국사람 한 명, 모두로 6 명이다. 말하기 연습이 많아서 생각보다 나에게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권미숙(權美淑)선생님도 첫인상 좋으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가 보다.

점심을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가진 더 하나의 하숙집에 사는 오보혜(吳保惠) 씨와 학원 근처의 식당에서 먹었다. 그리고 나서 신촌까지 같이 걸어서 돌아오다가 그녀가 방에서 텔레비를 잘 보지 못하니까 좀 봐 달라고 하니까 그녀의 하숙집에 들어서 텔레비를 점검했다. 그랬더니 안테나가 접속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방에 있는 외부 안테나 단자에 연결해 봤지만 여전히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 어쩐지 옥외 안테나가 나쁜가 보다.

#### 5 월 2 일 (토)

신촌 로터리에서 606 번 버스를 타고 일산의 이완영 씨택에 놀러 갔다. 오후

1 시 50 분쯤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김우선 선배가 놀러 와 있었다. 셋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실은 완영 씨와 김 선배가 둘 끼리 말하는 회화는 부산 사투리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빨라서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참으로 한심하다. 좀 늦어서 정봉운 씨도 와서 그냥 6 시쯤까지 막걸리를 계속 마셨다.



그 후 다들과 완영 씨 식구들도 같이 생선 전문 식당에 가서 콩치 구이나 넙치 회를 안주로 삼아 이번에는 소주를 마셨다. 상당히 과음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눈이 뜨지 않게 되어 버렸다. 이 날도 여러분께 다 대접을 받았다.

김우선 정봉운 이완영

### 5 월 3 일 (일)

어제 비가 많이 내렸으므로 오늘은 공기가 맑아서 상쾌하다. 오전에 완영 씨와 맏딸 나현아 그리고 내 셋이서 근처의 언덕을 올라가 봤다. 잠시 산책하다가 숙취기미 때문에 좀 아팠던 머리가 나아졌다. 완영 씨댁에 돌아가서 점심 때에 또 김 선배가 와서 같이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나서 어른 5 명, 어린이 4 명, 모두로 9 명이 김우선 선배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호수공원이란 곳에 놀러 갔다왔다.



호수 공원에서

저녁에 먹은 해물칼국수가 아주 맛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 도로 버스를 타고 오후 8 시쯤 하숙집에 되돌아와서 高平 씨와 아내에게 전화했다.

### 5 월 4 일 (월)

오래간만에 코끼리식당에서 오보혜(吳保惠) 씨, 임유자(任裕子)와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에 치른 기말 시험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예측한 대로 말하기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할 수 없지, 뭐.

## 5월 5일 (화)

오늘은 국경일인 어린이날이라서 학원은 쉬는 날이다. 4일 후에 센다이에서 올 친구들이 목을 예정인 풍전호텔까지 가 봤다. 호텔 근처에 적당한 식당이 있는지 찾아다녀 봤으나 눈에 띈 곳이 별로 없었다.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에 있는 중부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궁금해서 가 봤는데 주로 해산물을 파는 시장였다.

중부시장에서 광장시장까지 걸어가서 광장시장내의 노점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하면서 식당 아줌마와 회화 연습을 하려고 들었지만 아줌마가 바쁜 듯해서 안 됐다.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 노점식당에서 먹으면 아마 좋았을지도 모른다.

## 5월 6일 (수)

온종일 방안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점심을 하숙집 아주머니가 초대해 주었다.

## 5월 7일 (목)



입장권 (30,000w)



소책자

오늘 오보혜 씨에게서 권유를 받아서 세종 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제 17 회 국악대공연 완판창극(完版唱劇) '춘향전' 을 같이 구경했다. 오후 5 시에 시작되고 도중에서 6 시부터 7 시까지 한 시간 휴식을 취하고 7 시부터 다시 시작되어 10 시까지 무려 5 시간이나 걸린 대작품이었다. 호화 찬란한 무대와 정서가 가득한 판소리에 지루할 것도 전혀 없고 볼 만한 무대였다. 유감스럽게도 무대는 촬영 금지였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중에 오보혜 씨에게 장고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녀는 공연이 끝난 후 그 선생님과 만날 예정이라니까 나 혼자서 하숙집에 돌아왔다.

#### 5 월 8 일 (금)

내일부터 놀러 올 친구들과 사귀기 위한 자금을 200 만 원 예금에서 찾았다.

#### 5 월 9 일 (토)

방에서 오후 2 시까지 공부하고 3 시 15 분에 하숙집을 나서서 센다이로부터 놀러 오는 친구들을 마중하러 김포공항에 지하철을 타고 갔다. 4 시에 도착할 예정인 비행기가 약 20 분 정도 늦어서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서로 인사하고 한국의 여행사가 수배한 버스를 타고 풍전호텔에 향했다. 이번에 친구들이 공항과 호텔을 왕복하는 버스와 호텔의 수배를 부탁한 여행사는 코오롱 고속관광이란 회사이며 통역안내원은 전광자(全光子) 씨란 여성이다. 공항을 출발한 버스는 아무데도 들르지 않고 호텔에 곧바로 갔다. 호텔에 도착하고 방에 들어가서 각자 짐을 정리한 후 밖에 나서서 호텔 근처의 식당에 가서 해물잡탕을 먹었다. 식사 끝난 후 친구들과 헤어지고 지하철로 하숙집에 돌아왔다. 사토 씨 부부가 아내가 나에게 건네 달라고 부탁한 옷이나 여러가지 물건을 가져와 주었다.

#### 5 월 10 일 (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필요 없게 된 옷이나 아내에게 주는 식품 등, 사토 씨 부부가 일본에 귀국할 때 가져가 주는 짐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풍전호텔에 갔다. 9 시 반에 모두 같이 호텔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안국(安國)역에까지 갔다. 안국역을 나와 먼저 창덕궁에 가서 10 시 반부터 일본어 통역 안내원의 가이드로 약 1 시간 20 분 걸려 구경했다.



창덕궁



창덕궁

그 다음에 인사동 방면에 걸어 가다가 점심 때가 됐으니 이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청송(靑松)식당에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나를 기억하고 있어서  
 “어머나 정말 오셨군요” 하고 환영해 주었다. 또 약속하고 있던 일본의



청송식당에서 점심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인사동 바로 근처에 있는 조계사(曹溪寺)란 절을 구경했다.  
 그 절은 무언가 범요를 하고 있는 모양였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그것도  
 사토 씨가 일부러 사 가지고 온  
 새로운 것을 건네 주니 주인은  
 많이 기뻐했다. 나도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을 끝난 뒤 인사동을  
 구경했다. 구경하는 김에  
 인사동에 있는 산촌(山村)  
 이라는산나물 전문식당에 들러  
 내일의 저녁 식사를 예약해

조계사에서



조계사에서 친구들과



다음에 모두가 택시를 타고 동대문시장에 가서 잠시 구경했다가 일단 호텔에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하자고 호텔을 나서서 좀 걸어가다가 이전에 사전조사를  
 했을 때 눈에 띄지 않았던 불고기 집이 근처에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갈비를  
 시키고 술도 많이 먹고 모두가 기분이 고조됐다.



저녁을 먹은 불고기집 앞에서

특히 타카히라(高平) 부인이 별로 술에 취하지 않는데 좀 떨어진 자리에 있는 한국사람들과 의기 투합해서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도 자주 웃어 구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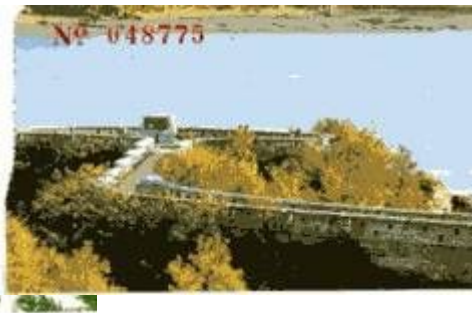
오늘 밤은 하숙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친구들의 방에 살며시 묵었다.

5 월 11 일 (월)

오늘은 학원을 쉬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사귀었다. 그저께 공항으로부터 호텔에 왔을 때 전광자 씨를 통해 부탁해 둔 버스를 타고 현지가이드 없이 내가 강화도를 안내했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한국말 실력으로는 좀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때때로 있었나 보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역시 현지 가이드를 부탁한 편이 좋았다. 그나저나 서투른 가이드를 하면서 강화도에 가서 갑곶돈대(甲串墩臺), 덕진진(德津鎭), 전등사(傳燈寺), 세 군데를 차례로 구경했으나 통역을 없이 구경했으니 역시 설명부족이었나 보다.



갑곶돈대(甲串墩臺),



덕진진(德津鎭),



전등사(傳燈寺),



전등사 약사전 앞에서



전등사



점심을 전등사를 참배하기 위해 만든 길의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동동주가 맛있다고 음식의 값도 싸다고 모두가 감격했다.



식당에서 동동주를 마시며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은 후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고려 인삼이나 꽃뫼자리 등을 파는 경기도 토산품 판매점이란 가게에 들러 쇼핑을 좀 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되돌아왔는데 이 관광은 예정보다 2시간 많은 8시간이나 걸렸다.

호텔에 도착하고 좀 쉬었다가 모두들과 밖에 나서서 근처의 중부시장과 슈퍼마켓에 가서 해산물이나 식품 등을 샀다. 그리고 나서 일단 호텔에 되돌아가고 방에 짐을 놓아두고 저녁식사를 하러 다시 호텔을 나섰다.

오늘 저녁은 어제 예약해 둔 인사동의 '산촌' 이란 산채요리 식당이다. 좀 어둡침침한 넓은 방 가운데에 춤을 추는 마루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식사를 하는 탁자가 나란해 있는 집이다. 음식은 여러가지 산채를 요리한 것들을 조금씩 접시에 담아 수 십 종류나 나왔다. 식사를 하는 중에 마루에서 민속적인 춤을 추는 쇼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손님들도 마루에 나가서 같이 춤을 추었다. 나도

나가서 같이 추었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오늘 밤도 호텔에 살며시 묵었다.



산채 요리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아가씨



서양인 손님과 같이 춤을 춘다.



## 5 월 12 일 (화)

친구들이 귀국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호텔 앞에서 김포공항에 가는 버스를 타는데 나도 그 버스를 타고 도중까지 같이 갔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를 내렸다. 지하철을 타고 하숙집에 돌아와서 학원에 갈 준비를 하고 나흘만에 학원에 갔다.

## 5 월 13 일 (수)

이종열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 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저녁까지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하숙집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람이란 그런 거야, 뭐. 저녁에 좀 밖에 나가서 안주를 사 왔다.

## 5 월 14 일 (목)

아침에 高平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센다이공항에서 세관의 직원이 佐藤 부인의 소하물을 열어서 자세히 검사했다. 상황을 들어 보니 세관 직원이 부인에게 “ 짐이 아주 무거워 보이네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서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맡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자세히 검사를 받은 모양이다. 아이고 미안해 부인.

## 5 월 15 일 (금)

## 5 월 16 일 (토)

오늘은 온종일 비가 계속 내렸으니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 박혀 있었다. 지출도 없었다.

## 5 월 17 일(일)

### 이완영 씨 부인과 딸들

이완영 씨에게서 놀러 오라는 전화가 왔으니까 정오쯤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서 606 번 좌석 버스를 타고 이완영 씨댁에 갔다. 오후 1 시 20 분쯤 도착했다.

가볍게 점심을 먹었다가 김우선 선배댁에 가서 연회가 시작됐다. 멤버는 여느 때와 같이 김우선 씨와 부인, 우성 씨의 친구와 부인, 이완영 씨와 부인, 일본의 나고야에서 와 있는 伊藤 씨, 각자의 애들, 그리고 나다. 남자들은 소주를 마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와 애들은 음식만 먹으면서 이야기하거나 놀고 있었다. 이차로 근처의 중국요리집에 가서 또 술 마시고 식사도 했다.



그 집을 나서서 이완영 씨 부인이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서 차 안에서 이완영 씨와 부인이 말싸움을 시작했다. 말이 빠르기는 하지만 이유는 대개 알 수 있었다. 어쩐지 마지막 가게에서 그가 남의 부인에게는 상냥하게 접하고 자기 부인에게는 차가왔다고 하는 게 원인인 듯싶다. 언제나 상냥한 부인이 울음소리가 되어 싸움했으므로 놀라 버렸다. 한국 여성의 천성이 격렬함을 엿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완영 씨는 3 차로 가겠다고 차에서 내리고 부인과 애들 그리고 나 셋이서 먼저 집에 돌아갔다.

## 5 월 18 일 (월)



아침에 이완영 씨가 출근하는 김에 학원까지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어젯밤의 말싸움에 대해 좀 물어보니 "괜찮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야"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일상다반사인가?

## 5 월 19 일 (화)



谷口 씨 大前 씨

어려운 일이고,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2 번째는 일상적으로 사물을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이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는 알고 있어도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지.

쓰기도 읽기도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말하기는 이렇게 서투른가? 언제나 그렇게 느끼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나 나름대로 얻을 수가 있었다. 그 하나는 한국사람과 일상적으로 자주 회화를 주고 받을 수 없는 것, 학교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숙집의 아주머니와 원활히 회화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꽤

## 5 월 20 일 (수)

오늘 서울의 낮기온이 29 도로 올랐단다. 오후에 일본에 귀국할 때 가져가는 선물을 살까 봐 근처의 여러 가게를 찾아 봤지만 마음에 든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녹색극장이란 영화관이 눈에 띄고, 좀 재미있는 듯한 영화를 상영돼 있어서 들어가서 구경했다. 제목이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인데 제법 재미있는 영화였다.



녹색 극장 입장권

## 5 월 21 일 (목)

## 5 월 22 일 (금)

하숙집 아주머니가 가진 더 하나의 하숙집에 宮下 씨란 일본의 早稲田大学の 학생이고 지금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침과 저녁 식사를 이쪽에 와서 먹는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식사하면서 宮下

씨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에 따르면 어젯밤에 吳保惠 씨가 같은 하숙집에 사는 어떤 한국인 남자에게서 하마터면 성희롱을 당할 뻔해서 꽤 난리가 났단다. 참으로 껄썩한 놈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완영 씨에게서 권유를 받아서 부산에 가는 날이다. 무엇 때문에 가겠느냐고 하면 그의 어머니가 80 세가 되었으므로 팔순의 축하회를 하니까 함께 참가하자는 권유다. 학원의 수업이 끝날 무렵에 이완영 씨가 자가용으로 학원 앞까지 마중하러 왔다. 당장 출발한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그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가 잠시 사무실에서 쉬었다가 겨우 자가용을 타고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갔다. 가는 도중에서 망향 휴게소란 곳에 들러서 뒤로부터 늦게 출발한 鄭봉운 씨, 金우선 씨, 趙응 씨들이 타고 있는 자가용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차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3 시간이나 기다렸다.



망향 휴게소에서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졌으니 오늘은 부산까지 가는 것은 그만두고 부산보다 가까운 데에 있는 이완영 씨 부인의 친정에 가기로 됐다. 부인의 친정은 밀양시에 있다. 고속도로에서 나가고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부인의 친정에는 상오 0 시를 넘어서 도착했다.

부인의 부모님은 자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 먼저 부인의 아버님께 다들 인사했는데 난 그런 인사는 처음이라서 옆 사람이 하는 모습을 흉내를 냈다. 아버님이 나에게 말을 붙였지만 실은 무어라고 하셨는지 못 알아들었다.

부인의 친정은 꽤 훌륭한 집이고 아버님은 위엄이 있는 분이요 어머니는 친절하신 분이요 보다. 이완영 씨와 친구들은 화투를 시작했다. 난 잠시 옆에서



부인의 친정



구경했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밤 새도록 화투를 쳤단다.

### 5 월 23 일 (토)

아침에 趙응 씨가 화투를 하느라고 한잠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곳을 안내해 준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고 표충사(表忠寺)라는 유명한 절에 데려가 주었다.



그 절은 부인의 친절으로부터 차로 가서 15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 때는 사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매우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데 趙응 씨가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회화는 다 한국말로 했으나 그가 말하는 한국말은 한심하게도 60% 정도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주지(住持)가 趙응 씨의 친구라고 해서 여러가지 접대를 해 주었다.



### 둘이서 절의 아침을 먹는다.

우선 趙응 씨와 둘이서 채소만으로 만든 아침 식사를 했다. 그 다음에 울창한 대나무들로 둘러싸인 주지가 사는 아담한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주지와 趙응 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왜냐면 두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내 한국어 실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였다. 주지는 별로 나이를 드신

### 주지와 찍은 기념사진





분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웬지 속세를 초월한

표충사의 향아리

고승처럼 보였다. 한참 그렸다가 주지 안내로 절을 구경했다. 참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참으로 조용한 절이다. 주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식사를 하고 10시 반 쯤 절을 떠나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둘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우리 차를 보고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아줌마들은 부산에서 오고 표충사를 참배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는 마을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줌마들을 태워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趙응 씨와 내가 하는 회화를 듣고 아줌마가

“이 사람은 재일교포냐?” 라고 물었다.

“아니, 이 사람은 일본사람이야. 지금 서울에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대”

“그래?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차는 이윽고 부인의 친가 근처까지 오고 아줌마들은 인사를 하고 차를 내렸다.

부인의 친가에 돌아와 또 식사하고 부인의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자가용 2대에 분승해서 부산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김해시(金海市)의 趙응 씨의 아파트에 들어서 좀 쉬었다가 우리들 자가용만 부산에 갔다. 부산에 도착하자 먼저 이완영 씨 형님댁에 가져가는 선물로서 쇠고기를 6만 원어치 샀다. 그리고 이완영 씨의 세 번째 형님의 집에 갔다. 이완영 씨는 8인 형제의 막내이고 형님이 4명, 누나가 3명 있단다.

세 번째 형님은 이름이 이남규(李南揆)라고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매우 상냥한 느낌이 드는 쾌활한 분이다. 저녁밥을 이완영 씨의 형제나 가족들과 같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면서 먹었는데 술의 기세도 가세해서 상당히 까불며 떠들어 버렸다. 어쨌든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다.

## 5월 24일 (일)

오늘은 이완영 씨의 어머님 손덕희(孫德熹) 여사의 팔순을 축하하는 날이다.



## 부산역 앞

친족들이 형님택에 속속 모여서 넓은 방 안이 사람으로 가득 차 버렸다.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분들이 첫인상이 좋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서울에서



시골에서 오신 친족부부와 나

이따가 이완영 씨 친구들 옆에 자리를 옮겼다. 여러 사람의 축하 인사나 자식들이 기념품을 드리는 식 등이 있고 축연은 7시 반까지 계속됐다. 축연이 끝나고 모였던 사람들이 제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 부산역 대합실

오는 손님들을 마중하러 이완영 씨와 시골에서 온 친족들 여럿이서 부산역에 갔는데 가는 길에 영도(影島)의 태종대(太宗臺)에 들러 좀 구경했다.

팔순 축하회는 부산 시내의 예식장에서 오후 5시부터 성대하게 거행됐다. 참석한 사람이 200 명이나 되는 일본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대축연이었다. 처음에는 이완영 씨의

조카 이건호 씨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손덕희여사(孫德禧女史) 팔순연(八旬宴)

형님택에 돌아간 사람들은 이완영 씨와 식구들, 나, 그리고 센다이에서 온 이완영 씨 누님 부부뿐이었다.



축연이 끝나고 돌아간다.

5 월 25 일 (월)



### 趙응 씨 가족들과 나현아, 나빈아

오전 10 시쯤 형님택을 떠나고 이완영 씨와 식구들 그리고 나 다섯이서 자가용을 타고 서울로 돌아가려는데, 도중에서 趙응 씨의 아파트에 들러 잠시 쉬었다.

그런데 이완영 씨가 부산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鄭봉운 씨로 바뀌었다. 그러나 鄭봉운 씨는 어젯밤부터 밤새 화투를 했기 때문에 심한 수면부족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매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타고 있었다. 이 때만은 ‘한국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다.

아무튼 아무런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무사히 밤늦게 서울에 돌아왔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김치를 사서 방에서 한숨 돌렸다.

### 5 월 26 일 (화)

오늘에 吳保惠 씨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찾았지만 학원 내에는 아무데에도 모습이 안 보였다. 이번주 목요일에 권(權) 선생님을 둘러싸고 반의 학생들이 모두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됐다.

하숙집 친구들과도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로 됐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기간이 닷새만으로 됐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작별의 선물로서 맛김을 한 상자 주셨다.

그런데 하숙집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더니 옆 자리에 낯이 익은 얼굴의 학생이 식사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전에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던 박상필 씨 아닌가 싶어 말을 붙여 봤더니 그랬다.

### 5 월 27 일 (수)

오늘은 학원이 쉬는 날이라서 낮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백화점에 가서 일본에 가져갈 선물들을 샀다. 저녁에 하숙집의 친구들이 홍익대학(弘益大學) 근처에 있는 일식 식당에서 내 송별회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 5 월 28 일 (목)

오늘은 이번의 한국 유학의 마지막 수업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원장선생님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원장선생님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시원섭섭하다’란 낱말이라고 종이에 써 주셨다. 그리고 나서 권선생님과 클라스 친구들과 어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참여한 친구는 박용 씨와 谷口 씨, 그리고 나 3명뿐이었다. 식사비는 박용 씨가 다 한턱 내 주었다.



谷口 權선생 후원장 박용



하숙집 주변



하숙집 아주머니와 친구들

하숙집에 돌아와서 귀국하는 준비를 하고 있더니 吳保惠 씨가 인사동에 가서 일부러 사 왔다는 청자의 찻잔을 선물로서 주었다. 고마워요 吳保惠 씨!

짐을 챙겼다가 하숙집 앞에서 아주머니와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를 마중하러 와 있던 이완영 씨의 차를 타고 일산(一山)에 갔다.

저녁에 6 시쯤부터 올해 정월에 이완영 씨댁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놀러 왔을 때 식사를 한 적이 있는 식당에서 내 송별회가 열렸다. 모인 사람들은 鄭봉운 씨와 가족들, 金우선 씨와 가족들, 李완영 씨와 가족들, 趙웅 씨, 成만중 씨와 가족들, 朴용진 씨 등 나를 포함해서 전부로 18 명였다.



거기서 많이 술을 마시고 많이 음식을 먹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이차로 갔다.

이차는 비어홀에 가서 거기에서도 마음껏 술을 마셨다. 그래서 거기를 나서고나서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이다.

여지껏 여러분께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송별회에 300,000 원 냈다.

김우선 씨에게서 즉석라면 한 상자를 선물로서 받았다. 일본말을 전혀 못한 사람이지만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준 사람이다. 이 3 개월 동안 사람 됨됨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사귄 수 있었으므로 참으로 행복하다.

## 5 월 29 일 (금)

드디어 즐겁고 재미있던 한국 어학 유학을 끝내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이 됐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완영 씨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완영 씨의 차를 타고 김포공항에 갔다. 그 동안 많이 신세 진 이완영 씨에게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로 약 3 개 월 만에 일본에 돌아왔다.

그런데 난생 처음 생긴 일이지만 오늘 아침부터 왼쪽 눈이 새빨갭게 출혈되어 있다. (나중에 알아보더니 이것은 결막하(結膜下) 출혈(出血)이란 증상이었다.)

## ㄴ이 한국 어학 유학에 들인 비용 일람표

日本円	日本よりカナダ学院へ送金	64,200 円
	送金手数料	6,500 円
	仙台空港で	4,235 円
		74,935 円
한국 원	가나다 학원 등록금&수업료	1,279,000 w
	텍스트 & 테이프	44,000 w
	반금	-168,570 w
	하숙비 (3 개월분)	1,350,000 w
	생활비 (하숙비를 제외해서)	2,222,900 w
		4,727,330 w

그 당시는 일본의 100 엔이 한국의 1200 원 내외였다